광주 직업계고교에 신입생 몰렸다

12곳 1천815명 모집에 2천320명 지원…마이스터고 인기 市교육청 "학과 재구조화·지역 맞춤형 학과 신설 등 효과"

광주시교육청이 직업계고등학교 경 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혁신'을 추진,신 입생 지원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 역 12개 직업계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천81 5명 모집에 2천320명이 지원해 평균 127 %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2024학년도에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 었던 일부 직업계고도 2025학년도에는

모든 학과가 1지망에 정원보다 많은 학 생이 지원했다.

2024학년도까지는 일부 학과가 1지 망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이후 추가 모집을 통해 정원을 확보했더라 도 학업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중도탈 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지원이 늘어난 데 대해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광주 형 마이스터고 지정 ▲신산업 및 신기 술 변화에 적합한 학과 재구조화 ▲지 역산업 기술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빛고을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통 한 취업률 향상 ▲직업교육지원센터 를 통한 중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 영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 석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AI반 도체과, 스마트팩토리과, 웹툰애니메 이션과 등 미래지향적, 지역맞춤형 학 과가 대거 신설되면서 신입생의 관심 을 끄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전체를 탈바꿈시키는 광주형 마이스터고도 학생, 학부모의 관심을

받았다. 광주공고는 2024학년도 신입생 지원율이 62.3%에 불과했으나, 올해 광 주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 내년 신입생 지원율이 115.3%로 껑충 뛰었

광주공고는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에 따라 전통 제조업 중심의 학과를 첨 단 산업 관련 학과로 개편하고, 학급 수 감축, 학급별 정원 18명으로 축소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내실을 다졌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변화하는 시대 에 맞춰 특성화고도 변화하고 있다"며 "올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도 특성화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다이기자



광주·전남 오늘부터 영하권 '뚝'

3일부터 광주·전남은 최저기온이 다 시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 최 저·최고기온은 각각 영하 1도-영상 4 도, 6-11도로 예보됐다.

전날 최저·최고기온 분포가 0.8-8.7 도, 16.3-18.9도임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10도 내외씩 떨어지는 셈이다.

4일에는 곡성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가장 춥겠다. 나머지 지역의 최저기온 은 영하 1도-영상 3도, 최고기온은 8-11 도로 전망됐다.

5-6일 최저기온은 앞선 날들보다 조 금 높게 예보됐으나 0도 안팎을 넘나드 는 지역이 다수라 추위는 여전하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3일 광주 ·전남 일부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안재영기자



고사리손들의 이웃사랑

2일 오전 광주 북구 문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말 돌봄 이웃에 지원할 '사랑의 저금통 개봉' 행사가 열렸다. 이날 창조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1년간 우유팩과 저금통에 모은 동전을 한곳에 모으

/김영근기자

道교육청, '2025 전남교육 설명회' 연다

오늘부터 이틀간 순천・화순서 글로컬 교육 비전 등 제시

각각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화순하 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25 전남교 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도내 각급 학교 교(원) 장을 비롯해 교육감, 본청 국장 및 과 장,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장, 전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전

전남도교육청은 2일 "3-4일 이틀간 남교육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

2025년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역 점 과제는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실 현',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교육 실 현'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최된 2024 대 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과 를 반영해 선정됐으며, 이번 설명회에 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발표된다.

1부 세션에서는 2025년 도교육청의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남형 한 글 해득 지원시스템, 아이랑 한글이랑 등 전남형 교육 플랫폼이 소개될 예정 이어서 관심을 끈다.

2부 세션은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 는 글로컬교육'을 주제로 김대중 도교 육감과 교육공동체 간 정책 토크가 80 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사전 설문으로 수집된 질문과 현장 참여자들의 즉석

질의응답을 통해 전남교육 청사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 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과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전남교육의 미 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5 전남교육 의 정책 방향은 지역과 세계가 함께 성 장하는 글로컬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 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전남교육가족 모두가 협력해 K-에듀 를 선도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차질 알려야"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 행감서 '정상 추진' 공표 지적

은봉희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일 남 구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서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정상 추진 중'이 라고 공표한 데 대해 지적했다.

광주 남구는 민선 8기 남구청장의 공 약 추진 상황을 매니페스토 홈페이지 에 발표하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생활 SOC 사업 분야의 행정복합센터 건립은 '정상 추 진'으로,진행률은 55%로 공표돼 있다.

은 의원은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 축 계획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40%의 추진율로, 목표 달성 여부가 정상 추진 되는 것으로 설명돼 있다"며 "사업 진 행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40%의 기준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한국문 화기술연구원 유치를 전제로 추진됐으 나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연구원 설립 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송암동의 경우 2022 년부터 현재까지의 달성 목표 40%가 이행됐기 때문에 정상추진이라고 표기 했다"고해명했다. /주성학기자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끝!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

010-3738-8989 광주 지사 062) 525-7585